

May 26, 2026 03:17 PM KST

꿈미, 전국 교회·사역자 2천여 명과 다음세대 사역 모색

By 송경호



▲꿈미있는미래가 주최한 「2026 다음세대 목회전략 컨퍼런스」가 5월 25일부터 26일까지 서울 강동구 오륜교회(담임 주경훈 목사)에서 진행됐다. 이 컨퍼런스에는 전국 교회 목회자, 교사, 사역자, 학부모 등 약 2,000명이 참석했다.

(사)꿈미있는미래가 주최한 「2026 다음세대 목회전략 컨퍼런스」가 5월 25일부터 26일까지 서울 강동구 오륜교회(담임 주경훈 목사)에서 진행됐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전국 교회 목회자, 교사, 사역자, 학부모 등 약 2,000명이 참석해 한국교회 다음세대 사역의 현실을 진단하고 미래 전략을 함께 고민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다음세대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라는 고민에서 출발했다. 특히 AI와 디지털 문화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한국교회가 단순히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차원을 넘어, 다음세대를 바라보는 관점과 철학 자체를 새롭게 점검해야 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컨퍼런스 기간 동안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주제 강의를 진행했다. 염재호 총장(태재대학교 총장), 김대수 교수(카이스트 교수), 박상진 교수(한동대학교 석좌교수), 지용근 대표(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황인권 대표(‘5無 교회가 온다’ 저자) 등이 강사로 참여해 한국교회의 현실과 다음세대 교육, AI 시대 속 교회의 역할, 미래 목회 전략 등을 주제로 강연했다.

선택강의에는 신형섭 교수(장신대 교수), 함승수 교수(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 사무총장), 백상원 목사[(사)꿈미있는미래 소장], 현승원 대표(세종 꿈의교회), 전혁 목사(예람워십 대표), 이세종 목사(북울산교회 담임), 유승현 목사(‘교회학교를 리셋하라’ 저자), 황성훈 목사(오륜교회 청년국장) 등이 강사로 참여했다.

각 강의에서는 다음세대 심방과 양육, 교회학교의 실제적인 변화 방향, 예배와 찬양 사역, 청년 및 청소년 세대와의 소통, 가정과 교회의 연계 교육, AI 시대 속 다음세대 목회 전략 등 다양한 주제를 다뤘다. 특히 단순한 이론 중심의 접근이 아

니라 실제 목회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사례와 방향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돼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번 컨퍼런스는 강의 중심을 넘어 실제 사역 현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행사 기간 동안 OVC, ODC, 제1교육관 곳곳에서는 약 40여 개 이상의 다양한 다음세대 관련 부스가 운영됐다. 각 부스에서는 교회교육 콘텐츠, 가정 연계 사역, 디지털 교육, 캠프 및 훈련 프로그램, 미디어 콘텐츠 등 실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다양한 사례와 자료들이 소개돼 참가자들의 큰 관심을 모았다.

또한 패널토론도 함께 진행됐다. 권진하 교수, 정평진 목사, 김재열 대표 등이 참여한 패널토론에서는 현장 사역자들이 실제로 고민하는 질문들을 중심으로 한국교회 다음세대 사역의 방향성과 현실적인 대안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이어졌다.

컨퍼런스를 주관한 관계자는 “다음세대의 변화는 단순히 교육 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시대 자체의 변화”라며 “이번 컨퍼런스가 한국교회가 다시 다음세대를 향한 본질과 방향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